자기소개서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교사	성 명	0 0 0

좋은 선생님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말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80년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사회의식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교생의 석차를 걸어두어도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의 학교 생활을 환하게 비춰주시던 선생님들이 해직되어 학교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뒤이어 학생 인권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났지만 번번이 좌절당했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속내가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며 밀려들었습니다. 낙관적으로 그려진 교과서 속의 모습에 외면해왔던 많은 진실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나도 크면 선생님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부터는 어른들이 툭툭 던지듯 '교대에 가라'고 권하는 말들이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교사에 대해 잘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았고, 여성의 직업으로 교사만 한 게 없다는 주변의 현실적인 조언들이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 원서를 쓸 무렵, 여러 학교의 입시원서를 만지작거리며 가기 싫다던 교대에 다시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대에 갓 입학해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대에 왔나요?'라고 씌어진 동아리 광고를 보았습니다. 어느 벽의 조그마한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가 지나가는 저를 콕 찍어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아래에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선생님이 되면 되니까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듯 교대에서는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을 키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선배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꿈들을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내 꿈은~'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를 때면 늘 뭉클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선생님이 한 인생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란 당차고 무모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1996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월에 갑작스런 발령 소식을 듣고 졸업식에 참석도 못하고 배낭에 옷 몇 가지만 챙겨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딸의 짐을 들어주러 기차역까지 따라 나온 아버지는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다, 배우면서 하는 거다, 아버지는……' 그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로서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들을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눈으로 배웅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수원으로, OO교육청으로, OO초등학교로…… 학생이었던 제가 순식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교사가 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3월이 그렇듯, 학교는 많이 추웠습니다. 학교는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교장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혼낸 것 같아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데다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는데, 운 좋게도 좋은 선배 교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스승 같은 선배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유나 책을 읽는 것보다는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 선배가 되어야지 했는데, 교육 경력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제가 그런 선배 교사가 되어 있는지 부끄럽게 자문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배움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방학이면 교과연구회에서 하는 연수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엔 국어 교과의 단원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 교육과정 재구성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교과 연구에 대해 이론적인 보충이 필요한 것 같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국어 교과를 넘어선 문해력,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텍스트 읽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독서교육 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론에 대한 필요를 느껴 시작한 공부였는데 막상 이론을 위한 공부, 현장과 괴리된 데서 오는 공허함으로 공부가 그리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독서교육에 대해 유연하지만 단단함이 갖춰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진다는 것은 유연하면서도 단단함을 갖추는 일이 아닐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견교사가 되고 수업에 동기가 없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즈음,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교사 연구년'에 응모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배우고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믿음에 저항이라도 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와 수업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구계획서를 썼습니다. 운 좋게 그러한 연구계획서가 채택되어 1년간 교사 연구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에서 비롯되어 연구계획서를 쓰긴

했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식의 연구 수행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접 연구계획서를 들고 '질적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시고 1년간 대학원생들과 동일한 연구 수행을 조건으로 수업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석박사 졸업논문 학기인 대학원생들과 동일한 과제를 제출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에서 비롯되어 그랬는지 힘들기만 했던 공부에 눈이 뜨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1년 동안, 공부는 삶의 태도이며 내적 동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한 아이를 선택하여 수업 속에서 관찰하면서 그 아이를 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를 보는 관찰자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업 안에는 교실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와 역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기력함, 무관심, 딴짓, 수업 방해로 보이는 행동들은 소외에 대처하는 나름의 '적응'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배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자기 나름으로 구성된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교과 지식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았던가? 배움을 교과 지식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수업 목표 외에도 각자에게 맞는 배움의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수업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자극해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수초 비전'을 상상했습니다

10년 경력 이상의 보직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장의 전횡을 막느라고, 정부의 성과와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막느라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반대 투쟁인 것 같아 공허함이 들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가 OO초에서 '작은학교모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모임인지 궁금하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OO초라는 이름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보니 인근에 이렇게 작고 아담한 학교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이승복 동상마저도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에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OO초 모임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모여 학교를 디자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만드는 작업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디자인한다는 자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행복과 교육』(넬 나딩스/학이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를 디자인하는 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행복은 너무 이상적이지는 않은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행복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엔 이상적이라 했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공동체의 목표로 둘 수 있을까 질문했지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과 행복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이 추구할 가치이며 공동체가 꿈꾸는 행복을 상정하는 것 또한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행복과 학교를 나란히 상상할 수 있다는 자체는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교육에 대한 논의는 'OO초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라는 문장을 만들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르므로 교육과 행복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각자의 행복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던 것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수초의 내적 동력인 민주주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OO초에 근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OO초에서의 5년,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OO초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교사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를 OO초에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5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에 전체 교사가 함께 동화를 낭독하고 독서 토론을 했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거창한 교육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기보다 교육을 중심으로 교사 간 연대를 어떻게 만들까, 교사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천들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라서 좋았습니다.

공개수업에 앞서 담임교사가 수업의 얼개를 가지고 오면 전체 교사가 공동으로 수업안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짠 수업안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수업 관찰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언제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수업 후 협의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동료에게도 배우고, 아이들에게도 배우고, 학부모에게도 배우고, 학교 시스템에서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울타리가 좋았습니다.

자칫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상이 강해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훌륭한 공동체를 지향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함과 훌륭함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를 조율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이지만 누구나 실현할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서로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한순간 긴장을 놓쳐 정체되거나 방향을 잃으면 어수선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OO초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무게로 말을 하고 공동의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살피는 노력이 저에게는 민주주의였습니다.

OO초로 발령이 나기 전에 'OO초 학생 다모임'을 참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교 아이들이 다목적실에 모여서 생활 문제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논의의 구조가 형성되면 자발성에 기초한 아이들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모습에 적잖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 후 OO초 교사로 근무하면서 2년간 '학생 다모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학생 다모임은 어려웠습니다. 다모임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다모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교사들 간에 매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나 학생자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학생자치가 아닌가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해 조바심을 갖기보다는 학교 생활과 수업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디고 어렵지만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계수의 아이들이 행사를 기획・준비・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배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봐주는 것 또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OO초 임기를 마치고 보니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보다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상황과 맥락에 충실하는 것 또한 우리를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변혁의 시대 교육,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주 특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나긴 휴업에 이어 온라인 수업이 결정되었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좌충우돌 내적 외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방역이 우선이냐, 교육이 우선이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하는 상황들이 날마다 매시간 판단을 요구하고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의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겪으며 인간이 덥힌 지구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간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불확실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삶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미래의 논의에서 과학이나 정치, 경제의 논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뒤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만들어놓고 대다수의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교사 또한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성장을 지향하는지를 한 사람의 시민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OO초에 근무하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중 『넘나들면서 배우기』(엘리엇 워셔/민들레)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품는 10가지 기대 중에 '삶에서 중요한 인물 만나기'가 맨 처음 나옵니다. 교육의 조건이며 시작은 만남, 즉 '관계 맺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수초 아이 89명을 잘 아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겠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계수초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저에게 OO초는 많은 공립학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곳, 실천하는 곳입니다. 제 동료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OO초는 각자의 꿈이 각축하고 분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로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 수시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해내었을 때의 성취감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공동으로 했을 때는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실천력이 높아지고 수업에 대한 성찰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교사가 결정할 수 없다면 교사도 수업에서 소외를 겪게 됩니다.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겠지만 OO초에서 교장의 역할은 중요하고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OO초에 근무하면서는 교장 선생님을 흔히들 말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예정에 없던 보조교사가 필요할 때, 수업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고 달려와달라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반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달라며 교장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업 협의를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묻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개인의 자격으로 교장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OO초의 일원으로서의 교장 선생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닦아놓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구성원들의 노력, OO초에서 함께 다져간 민주주의의 힘과 교사로서 성장된 자질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움직이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다.